

광주시, '중대재해 발생 제로' 종합계획 수립

광주시가 올해 '중대재해 발생 제로'를 목표로, 현장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단순 점검이나 사후 대응이 아닌,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내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26년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강화에 집중한다.

종합계획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4대 전략, 12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4대 전략은 ▲중대재해 관리체계 정착 ▲종사자 안전을 위한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교육 강화 ▲시민 안전을 위한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교육 강화 ▲모니터링 시스템 내실화 등이다.

주요 과제는 ▲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관리·점검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교육 실시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개선 등이다.

광주시는 기존의 정기 점검 위주 관리에서 벗어나 사업장별 특성에 맞춘 상시적 유해 요인 발굴 시스템을 도입한다. 위험요인 발견부터 즉각적인 개선 조치, 후속 관리까지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해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재해 발생 때 즉각 작동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현장에 맞게 정비하고, 실



위험요인 사전 발굴·개선... 산업-시민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

매뉴얼 정비·모니터링 내실화 등 4대 전략·12개 과제 추진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현장밀착 안전관리로 중대재해 예방

질적인 작동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해 현장 대응력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종사자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작업 공정과 직무 특성을 반영한 교육을 통해 종사자가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스스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 직업성 질병 관리를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

회를 중심으로 종사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위험성 평가 과정에 종사자 참여를 확대하고, 정기적 추진 상황을 점검과 성과 분석을 통해 계획을 지속 보완·발전시켜나갈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공중이용시설, 공공시설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대상으로 잠재적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중대

시민재해 예방 관점의 안전관리 사항도 종합계획에 함께 반영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근로자 참여를 기반으로 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시정의 핵심 과제로 삼아 나가겠다"며 "종사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시민은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권철 기자

광주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전문인력 위촉

예방교육 강사 8명·가정방문 상담사 6명... 맞춤형 교육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광주스마트쉼센터와 함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한 전문인력 14명을 선발, 지난 12일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전문인력은 예방교육 강사 8명과 가정방문 상담사 6명이다. 이들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방교육 강사들은 학교,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교육을 희망하는 곳에 파견돼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의 위험성을 알리고 올바른 이용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가정방문 상담사는 과의존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센터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 학교, 기관 등을 찾아가 맞춤형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맞춰 과의존 치유와 회복을 지원한다.

예방교육 및 가정방문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www.iapc.or.kr) 또는 대표전화(1599-0075)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광주시와 광주스마트쉼센터는 지난해 총 4만5810명을 대상으로 예방교육(4만2714명)과 상담(3096명)을 진행했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2만2005명의 2배(208%)가 웃도는 인원이다.

박해미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최근 들어 인공지능(AI)과 숏폼에 기반한 인터넷·스마트폰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신기술의 유용함과 함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광주지역 학생과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과의존 예방교육 및 방문 상담을 통해 올바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스마트쉼센터(광주광역시 시청 3층)에는 전문 상담 인력이 상주해 개인 상담, 전화 상담, 스마트쉼 캠페인 등 다양한 예방·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승원 기자

광주소방, 지난해 119신고 하루 평균 796건

108.5초마다 1건씩 접수... 7월 집중호우로 건수 급증

기후변화 따른 재난발생 증가세... 대응대책 지속 추진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광주지역 119 신고 접수 건수가 29만543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796건으로 108.5초마다 1건씩 119 신고가 접수된 셈으로, 전년보다는 946건(0.3%) 증가한 수치다.

월별로는 7월의 신고접수 건수가 3만4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7월16일부터 20일까지 닥친 동안 누적 강수량 5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서 접수 피해 신고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자치구별로는 북구와 광산구의 신고접수가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인구 대비 신고율은 동구가 1만명당 2156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독거노인 비율 증가와 노후 건축물 밀집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고접수 유형별로는 ▲화재 신고 8552건 ▲구급신고 2만398건 ▲구급신고 7만2395건 ▲민원 안내 신고 5만3983건 ▲의료상담 4만7647건 ▲착오·실수 등으로 인한 무응답 신고 4만8420건 등이었다. 화재 신고 건수 8552건 가운데 실제 화

재는 725건(8.5%)으로 집계됐으며, 화재 신고와 실화제 모두 봄철 건조기에 해당하는 3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구조신고는 집중호우가 내린 7월에 가장 많았으며, 구급신고는 운영질환·탈수·심혈관계 응급환자가 늘어난 7~8월, 저체온증과 연발 응급 관련 응급상황이 증가한 12월에 집중됐다.

민원 안내 신고는 전년 대비 16.1% 증가했으나, 착오나 실수로 발생하는 무응답 신고는 17.8% 감소해 상황근무자의 업무 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구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등 복합재난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수난구조 장비 사전 배치 등 재난 대응 대책을 지속 추진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철수 기자

광주시, 중독자 직업재활 통해 자립 돕는다

올해부터 '센터형 중독자 직업재활 지원사업' 본격 시행

치료·회복-고용 연계 통합체계 구축... 시범사업 효과 입증

3개월 이상 근로 유지율 78%... 병원 치료·상담 한계 보완

소신 예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 근로자의 직장 적응을 돕는다.

광주시가 호남권 최초로 도입한 '센터형 중독자 직업재활 지원사업'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연계함으로써 기존 병원 치료와 상담 중심 지원체계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2021년부터 5년간 센터형 중독자 직업재활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운영, 실질적 효과를 확인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 사업을 통해 취업한 인원 34명 중 20명(59%)는 서비스업·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유지했다. 특히 2차 시범사업

기간(2024~2025년)에는 3개월 이상 근로 유지율이 78%(23명 중 18명)에 달했다.

이 사업을 통해 취업에 성공해 2년째 근무 중인 한 이용자는 "단순히 생계 유지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이 재발 방지에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중독자 직업재활 전담기관인 '늘봄센터'에 위탁,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18세 이상 중독 회복자 가운데 직업재활 욕구가 있거나 유관기관이 의뢰한 대상자가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늘봄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062-525-337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전민규 기자

광주 고려인마을, 제107주년 3·1절 맞아 만세운동 재현

려인 만세운동을 재현해 국경 밖에서 조국의 광복을 염원한 고려인 선조의 역사를 되새긴다.

고려인 동포와 월곡동 주민 등 600여명이 참여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일제강

점기 독립의 간절함을 재현한다. 참가자 모두 태극기를 들고 마을 돌레길을 걸으며 만세삼창을 외칠 예정이다.

행사장에서는 희망 태극기 만들기 체험과 중앙아시아 전통빵 '리보시카' 나눔 부

스를 운영한다.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는 "3·1만세운동 이후 연해주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을 돕기 위해 고려인 선조들은 식량과 자금, 병력을 지원해 항일운동에 힘을 보탰다"며 "그 눈물과 한을 기억하고 앞으로 선조들의 희생 정신을 잇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